

김한길 4연승 다시 선두로

민주 당대표 경선 강원서도 1위

이해찬 “김한길-김두관 연대 잘못된 것”

수도권·모바일 투표서 최종 판가름 날듯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지역순회 강원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최고 득표를 얻었다. 누적 순위도 김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경남·제주·충북 및 세종시에 이어 4연승을 기록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낙승한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에 대한 견제론이 표심을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친노의 득표를 막으려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자 강원도에서 한때 집거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대의원들을 상대로 1인2표 방식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678표(투표인 수 339명) 중 179표를 얻었다. 이해찬 후보는 82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이상호 후보(166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추미애(69표)·조정식(61표)·이종걸(53표)·강기정(39표)·문용식 후보(29표)가 그 뒤를 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지역 경선에서 이 후보에 7승2패의 우위를 거뒀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수에서도 1921표를 기록, 1837표를 기록한 이 후보를 84표 차이로 따돌리고 5일 만에 선두 자리를 다시 빼앗겼다.

이어 추미애(1107표)·강기정(1106표)·이상호(961표)·조정식(859표)·이종걸(687표)·문용식(304표) 후보 등의 순이었다. 김 후보는 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심과 당심이 만난 결과”라며 “대선 경선관리와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득표 현황

후보자	누적 득표수
김한길	1921(179)
이해찬	1837(82)
추미애	1107(69)
강기정	1106(39)
이상호	961(166)
조정식	859(61)
이종걸	687(53)
문용식	304(29)

※이는 30일 강원 경선 결과

이 후보와 김 후보의 혼전 상황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경선과 모바일 투표를 통해 최종 결과가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에서 전복(31일)·인천(1일)·경기(2

일)·서울(3일) 등을 순회하며 대의원 현장투표(30% 반영)를 실시한다.

다만, 인천·경기·서울에선 유세만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5~6일 실시되는 일반 시민과 당원 대상 모바일 현장투표(70% 반영)를 합산해 6·9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경남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김두관 경남지사와 김 후보간 연대에 따른 결과”라며 “실제 연대 행위가 이뤄졌더라면 김 후보를 누르고 김두관이 선두였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강원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한길 후보가 30일 강원도 원주시 인터블로그호텔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1위로 선두를 탈환하고 난 뒤 부인 최명길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저격수’ 박지원 ‘박근혜 흑기사’ 이정현

잇단 날선 비판에 “스토커 수준” 공방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저격수’로 나선데 맞서 같은 전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흑기사’ 역할을 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검증에 대해 ‘누가 감히 나를 검증하느냐’는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박 전 위원장에 대해 박태규씨와의 만남,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요구, ‘7인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검증 요구를 네거티브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민주당 후

보도 언론과 국민이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끊임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18대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의 실질적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이정현 전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공세에 대해 “좀 지나친 표현으로 하자면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평화방송에 출연, “박 전 위원장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든지, 원로들과 식사한 것을 마치 7인회가 있어서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공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 삼은 김용환이라는 분은 박지원 위원장이 깎듯이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있어 DJP 연합을 성사시킨 주역 중 주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너무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은 대선을 포기한 것인가. 대선 후보 하나 못 내서, 안철수 교수를 못 모셔와 그렇게 안달인가”라고 힐난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 당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있어 ‘통’자가 들어간 두 답을 ‘두통당’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통한 법적 징계 가능”

자진사퇴 촉구...새누리당과 공조 시사

민주통합당은 3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문대성 의원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국회 윤리위의 자격심사 항목(적법한 당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선 부정을 통해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입한 이석기, 김재

연 의원의 퇴출을 위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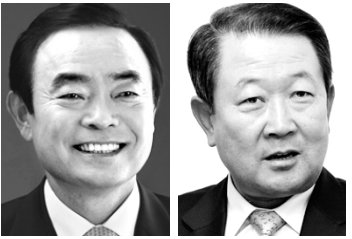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박 원내대표는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사퇴도 함께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김형태, 문대성 의원과 같은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병완·박주선, 19대 국회 첫 작품 내놔

청년고용촉진·구도심재생 활성화 법안 각각 발의



장병완 의원 박주선 의원

장병완(민주통합당·남구) 의원과 박주선(무소속·동구) 의원이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돼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2009년 기준 공공기관·지방공

침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용적률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도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親朴 강창희 국회의장 출마 선언

親李 정의화 직무대행 2파전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30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친박계 6선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정사 64년 동안 20명의 국회의장이 있었으나 총 4명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제가 제1당의 대선위원이 됨으로써 총선경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과의 2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구주류 친이계이면서도 화합형 인사인 정 의장 직무대행은 출마 회견을 하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 이미 출마 결심을 밝힌 상태다.

강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정 의장 직무대행은 당직과 국회직을 친박계가 독식하는 것은 국회운영은 물론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류 부의장 자리를 놓고는 친박계 정갑윤 의원과 친이계 이병석 의원이 맞붙었다. 4선인 두 사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당 화합에 앞장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모두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2년 7월 2일(월) ~ 8월 3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2년 6월 15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사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입찰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리점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